

광주·전남은 지금 '소나무재선충과 전쟁 중'

피해 고사목 급속 확산 비상...청정지역 나주·화순에서도 발생 지자체, 나무 베기·드론 예찰 강화 등 4월 말까지 방제 총력전

광주·전남 지역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4월말까지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인력·예산 부족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확산하는 모양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속에 있는 크기 1mm 내외의 소나무재선충이 소나무에 침입해 일으키는 병이다. 치사율 100%로, 일단 감염되면 회복이 불가능해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린다. 소나무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 등이 건강한 소나무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 사이로 침입한다. 1쌍의 소나무재선충이 20여일 간 20만 마리로 번식하고, 소나무의 수분 이동통로를 막는다.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소나무는 3개월 내 붉게 변하며 말라 죽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작업은 매개충인 하늘소가

활동하는 10월께부터 다음해 4월까지 이뤄진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소나무는 2018년(2018년 5월-2019년 4월) 4그루에서 2021년(2021년 5월-2022년 4월) 764그루로 늘었다. 피해고사목은 광산구에서만 2018년 4그루에서 2021년 761그루로 약 200배 증가했다. 현재 광산구는 야산뿐 아니라 일반 도롯가에 심어진 소나무도 소나무재선충 감염으로 붉게 변하며 피해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등은 최근 4년 사이 광산구에서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은 3명 뿐으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방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올 여름철 소나무재선충 피해 고사목을 전수조사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뒤, 인력과 예산 충원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지역도 상황이 심각하다. 전남도는 2018년(2018년 10월-2019년 3월) 5800여 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했는데, 2022년(2022년 10월-2023년 3월)에는 1만8000여 그루의 고사목이 발생했다. 4년 사이 3배 증가한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지역도 2018년 7곳에서 2022년 11곳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예전에는 주로 여수·순천·광양 등지에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나주·화순 등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에까지 소나무재선충이 번지고 있다. 이에 각 시·군은 긴급방제비를 편성하고, 감염된 소나무 주변 20m의 나무를 모두 베는 등 방제작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초반에 방제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감염 소나무가 기하급수적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여수에서는 올해 약 7000여 그루의 피해 고사목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같은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방제가 어렵다는데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최근 4-5년간 정부 예산이 줄어 방제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다보니, 감염된 소나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파쇄·훈증(감염 소나무를 약품 처리 한 뒤 천막으로 덮어두는 방

식) 처리하거나, 피해가 너무 심각한 곳은 인근 소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는 '모두베기' 방식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찰과 방제작업을 수행하는 인력이 20여명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해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4월말까지 필사적으로 방제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양의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심각한 경남 하동과 인접하다 보니 매년 2000-3000그루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라인을 만들어 소나무에 미리 '예방주사'를 투입하면 소나무재선충병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하늘소가 계속 날아와 방제작업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올해 총 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해 고사목 제거, 예방나무주사, 모두베기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예찰활동에 드론을 투입하기 시작했다"며 "올해 하늘소의 '우화'(번데기가 날게 되는 성충이 됨) 시기가 4월말 정도로 예측되는 만큼, 그 전까지 총력을 다해 방제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고속도로 택시서 하차 승객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겨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하차한 승객이 뒤따르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전남 밤 9시 20분께 호남고속도로 승주 IC 인근에서 광주방면의 고속도로를 걷던 A(52)씨가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다. A씨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하차해 100m 가량 걸어갔다 사고를 당했다. A씨를 내려준 택시기사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밤 9시께 경찰에 "A씨가 기사를 폭행하고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기사는 경찰조사에서 "A씨에게 폭행당해 부득이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을 정차할 수밖에 없었고, A씨가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에 탑승하기 전 순천 조례동에서 만취상태로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출동한 순찰대원은 A씨 가족의 요청에 따라 A씨를 택시에 태워 순천시 승주읍 방향으로 보냈고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택시 내부의 블랙박스와 고속도로 CCTV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디민 기자 kdi@kwangju.co.kr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 폭언·폭행했다면? 법원 "정서적 충격 인정"...아동학대 벌금형

최근 JTBC에서 종영한 '신성한, 이혼'은 드러나기 힘든 각종 이혼의 소재를 설정,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드라마 속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평생을 참았지만, 아이들에게 까지 폭행이 이어지자 참다 못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현실에서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며느리는 이혼요구 이외에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검찰은 지난해 12월 할머니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아이들에 대한 학대 사실 이외에도 할머니가 아이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점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68)씨는 지난 2017년 5월께 당시 4살과 5살의 손녀 2명이 보고 있는 앞에서 며느리인 B(35)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지난해 4월께에는 B씨가 자신에게 '술을 그만 마시

라'고 했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보고 있는데도 폭언을 하며 뺨을 수회 때린 혐의다. 물론 A씨는 손녀가 늦잠을 잔다는 이유로 도배지를 맞아 얼굴부위를 때리고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나가라고 소리 지르며 가방을 집어 던져 직접 아이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물리적인 행동이 아니라도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충격이 인정된다며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전일호)는 지난 6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B씨 및 손녀들과 합의를 한 점, B씨가 이혼을 하고 친권과 양육권을 넘긴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늘은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하루 앞둔 10일 어린이들이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에서 손태극기를 흔들며 산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판 이유 체류기간 연장 요청 광주지법, 외국인 기각 결정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상현)는 민사소송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을 요청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23일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유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11월 29일 '민사소송은 출국기간 연장 가능 대상이 아님'을 이유로 불허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불허 결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무관리비 사적 사용 의혹 전남도 공무원 수사

매점서 고가 전자제품 등 구매 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 등에 수사요청을 받은 경찰은 전남도청 공무원들이 전남도청 공무원노조가 운영하는 매점(인터넷쇼핑몰)에서 예산 목적 외 물품을 구입한 것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성립하는 지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전남도청 사무관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

시민사회는 공무원 A씨가 사무관리비로 명품 넥타이와 고가의 카드지갑, 전자제품 등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범죄 혐의점이 성립하면 관련인의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은 지난달 27일부터 사무관리비 예산 사적사용과 관련 공용물품 구입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튼튼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덕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